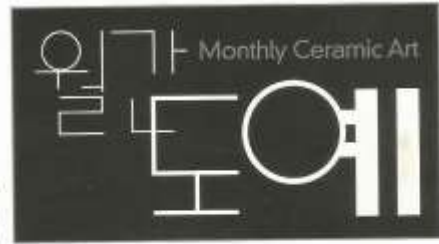




March 2017  
Vol.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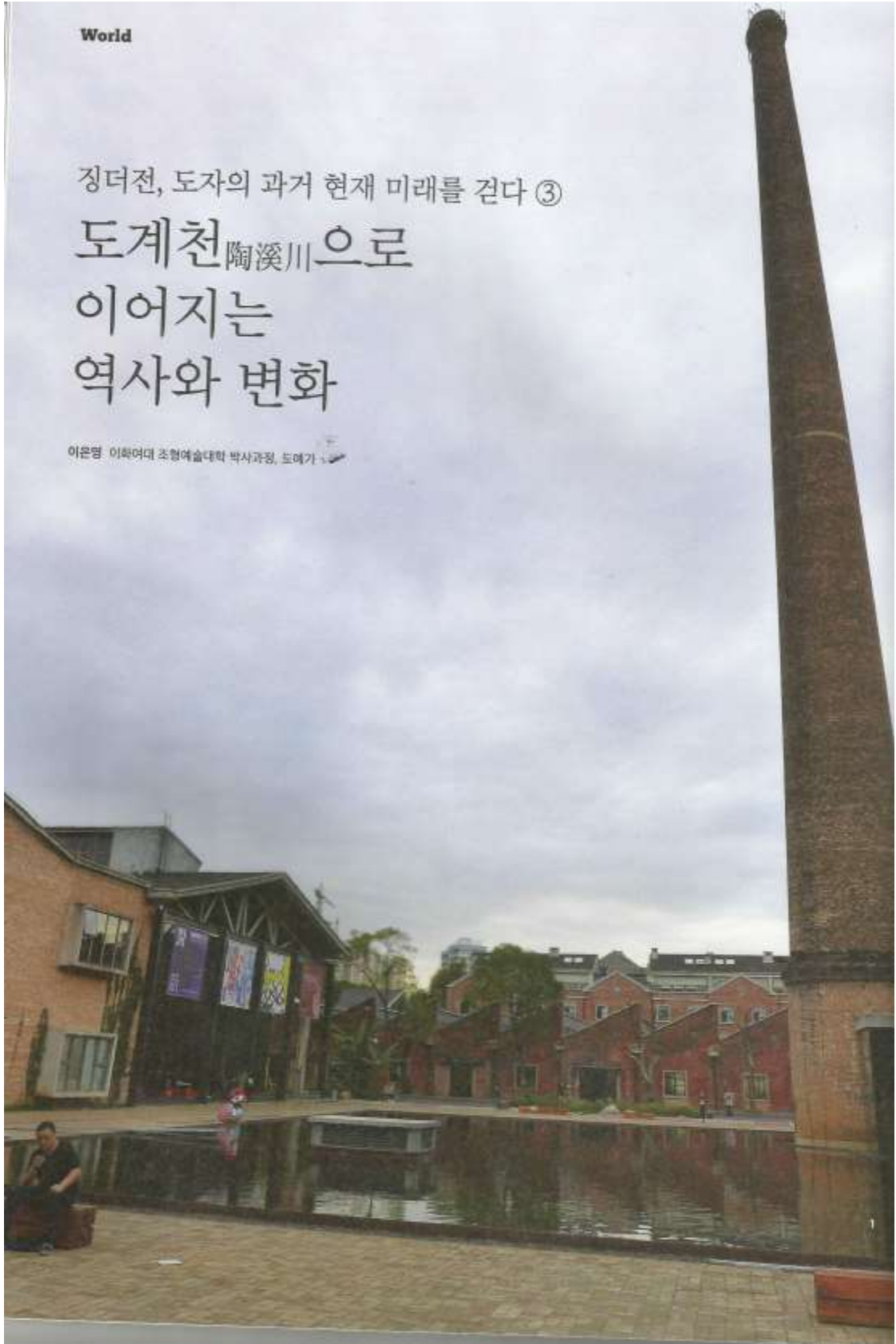
공생이음 김태민작  
신성, 그치유트북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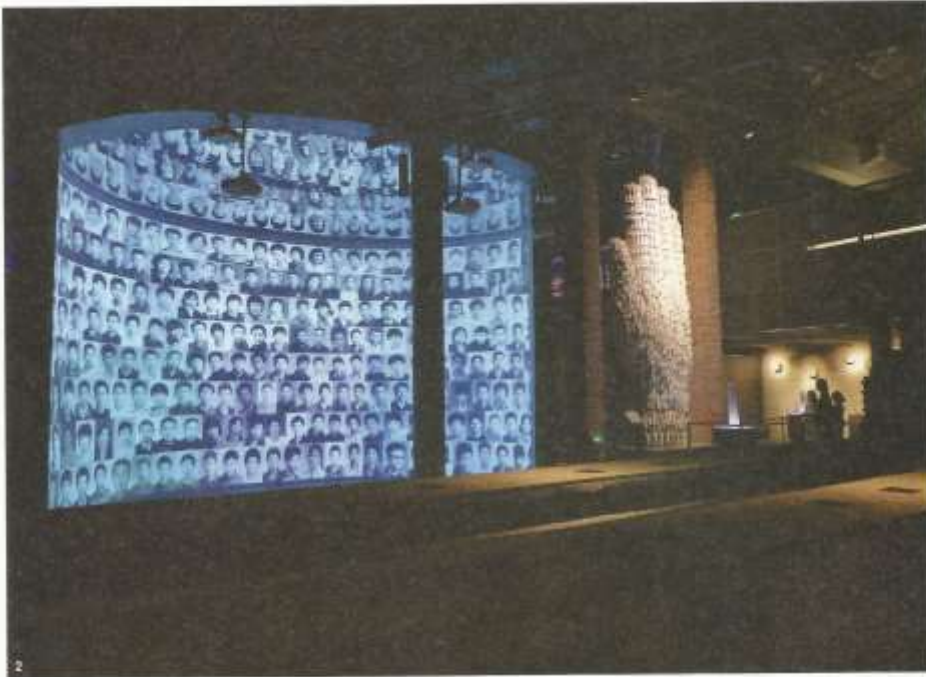
World

징더전, 도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걷다 ③

# 도계천 陶溪川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변화

이은영 ·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박사과정, 도예가





1 도개선 정미전에 역사 깊은 대형 도자기 공장 부지가 도자예술공원으로 변모했다.  
2 옛 국립 입자선 도자 회사 구상원들의 인물사진으로 제작된 영상설치작품

1950년 4월 1일 중국 정미전에서는 '국립 정미전 도자 회사'가 문을 열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 쇠약해버린 중국의 도자 산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국가 주도로 건립되었으며, 그 이후 1958년의 민간 합작 부자 등으로 10여 개의 도자기 공장들이 정미전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국가 주도의 개발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기업과 지역 국가에 기여하는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기의 도자 공장은 최고의 건설기도, 1986년 당시 하루 생산량은 3억 2천만 개, 1일 매출액은 425억 원, 그리고 용량의 전체 직원 수는 1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시장경제환경의 영향으로 정미전의 도자기 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동소평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도자기 공장들의 경쟁을 만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부족한 노동력은 생산성의 역행과 제품의 품질 하락을 불러왔고, 이 당시 정미전의 세라믹 산업은 상당한 침체를 겪게 된다. 또한 당시 노동자들이 경제적 실행과 질병에 대한 노출 등 많은 생활의 어려움이 따랐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협력으로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혁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2009년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이전의 복지 체납에 대한 혜택 또한 제공받게 되었다.

이런 역사를 겪어오면서 정미전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이후 수십 년을 활용할 수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라믹 산업에 종사하는 다수를 보호하



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은 현재 경기도권에 소진된 자원과 시장의 분석 등으로 고려했을 때, 세라믹 개발에 투자하던 기존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소진된 자원과 농척버린 시장기회 그리고 변해버린 한 경기도권의 상황은 도자기의 개발과는 맞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새롭게 관심을 보인 것이 기존의 토지와 공장 및 장비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세라믹 산업의 유골을 이용한 문화 창조산업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타오강 크릭 프로젝트'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도자기와 연결되어 기능을 수행해온 강을 기점으로 도자문화 산업 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총 89,000m<sup>2</sup>의 공

간에 300만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800개 이상의 국내의 기업이 이곳에 등록하였다. 이 공간은 문화가 그 공간을 생존시킨다는 원칙으로, 특성화된 문화 관광지이자 도시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국제적 창조 플랫폼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016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제 도자 박람회를 기점으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도계천(陶界川, Taogyecheon Ceramic Art Park)'이 문을 열었다. 침체기에 문을 닫은 공장부지에 설립된 복합문화 단지는 원형석반가마, 터널 가마등, 기존의 상업시설과 높은 공장의 굴뚝 등 공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재변되고 변형되었다. 지금까지의 도자 산업의 역사와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라믹 산업문화 박물관



- 3 기획전시실
- 4 국제도자관
- 5 현재 중대전에서 활동 중인 한국도예가 김병석과 김동현의 도제가게 '소통디오 락'
- 6 주말 저녁이면 도개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7. 장더진 국제 도자 스튜디오와 대형가마를 실험중인 책임디자이너 라이안  
8, 9 장더진 국제 도자 스튜디오

관과 전시를 볼 수 있는 전시 공간들을 마련했고, 넓은 공  
원 공간을 비롯하여 비물질 문화전시 장소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제 레지던시, 작가 스튜디오, 도자 박물관들 창조 플  
랫폼의 기능을 위한 공간들이 있으며, 호텔, 갤러리, 레스토  
랑 등 상업적 공간들 통해 사람들이 체질과 려적의 공간으  
로 이곳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지속  
적 개선과 발전과 개업을 위하여 미셀 라이언을 컨설턴트로  
들였으며, 그 외에도 네덜란드의 덴프트, 이탈리아의 리모  
주, 상하이의 포슨 그룹, 푸젠 Futen 그룹 등 유명 기업들  
과 파트너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나 이곳에 위치한 장더진 국제 도자 스튜디오(International Studio)는 장더진 시와 도계현의 지원으로 세계의 혁신적인 도예가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문을 열었다. 국제 도자 스튜디오는 3개의 가스 가마와 2개의 전기 가마 테스트 가마 등이 있으며, 물레와 판방기 등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총 12명의 초대 작가가 이곳에서 작업을 했고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입주 작가들이 있다. 이는 중국 내에서의 도자문화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도자 문화의 교류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선 정된 작가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아이디어들을 중국의 대중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 스튜디오와 도계현의 공간들은 언제나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흥미 있는 사람들은 공개작가이나 전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런 장더진의 시도가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시도와 접근 방식 자체가 의미가 있기에 도계현의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관심이 이들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해 유지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

필자 이은영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시예술학과 학사 졸업 후 영국 Cardiff Metropolitan 도자예술학과 석사 졸업했다. 전시기획자로서 2016년 <ddproject>, 2017년 <Lab project Material possibility>에 참여했다. 현재 이화여자 도시예술학과 박사과정에서 있다.